

레이어스 클래식 공연 군산서 열린다

유튜브 구독자 60만명 · 누적 조회수 1억회 기록한 클래식 핫스타... 30일 군산예술의전당서 진행

전 세계인과 클래식 음악으로 소통하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트리오 레이어스 클래식이 오는 30일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레이어스 클래식은 2019년, 클래식 명곡을 재해석한 1집 데뷔 앨범으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이후 클래식을 통해 대중과의 꾸준한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그룹이다. 그 결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 즉시 구독자 수 65만명,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하며 클래식계의 메가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레이어스 클래식은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트리오 팀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DMK(강대명)는 동서양 음악을 두루 섭렵하며 새로운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이다. 국립 국악 중 · 고등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서 서양 작곡을 공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에 진학해 학 · 석사 과정을 마쳤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제 '한국의 작곡가들'에서 발표한 작품이 독일과 미국에서 연주됐으며, 세종문화회관에서 화음 챔버의 연주로 초연된 대금, 거문고와 현악 앙상블을 위한 가 국악방송 'FM 국악당'에서 연주해 큰 호평을 받았다. 작곡가로서 국악, 서양 음악뿐 아니라 크로스오버 장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팀의 든든한 베이스를 담당하는 첼로 강대연도 뛰어난 대중적 교감과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우리의 봄날'(레이어스 클래식 in 군산) 포스터

로 사랑받고 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부산음악콩쿠르 1위 및 대상 수상으로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 독일로 유학해 자르 음악대학(University of Music Saar)에서 학 ·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으며 이탈리아 가에타노 치네티(Gaetano Zinetti) 국제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JAY(김재영)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에게서 "뛰어난 예술적 감성과 에너지, 재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을 받았다. 예원학교 재학 중 금호영재 콘서트로 데뷔 후 금호 영재로 발탁되기도 했으며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 · 석사 과정을 밟았다. 레이어스에서는 총괄 제작과 프로듀싱도 맡아 팀을 이끌며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서고 있다.

이번 군산 공연에는 '윌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봄 클래식 모음곡', '영화 라라랜드 OST 모음', '영화 타이타닉 메들리' 등 클래식부터 탕고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게스트로 세계적인 바리톤 이음광이 출연, '나의 발랄한 발렌타인', '나는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등 레이어스 클래식의 뮤즈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예술의전당 홍양숙 관리과장은 "클래식을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무대로 꽃망울이 차오르는 요즘과 잘 어울리는 곡들로 준비했다"며 "이번 레이어스 클래식 공연을 통해 더욱 화사한 봄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의 봄날(레이어스 클래식 in 군산)'은 전석 3만원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김병조 교수 초청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 27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 '명심보감' 주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3월부터 11월까지, 5월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총 8회에 걸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선보인다.



올해 첫 '다담'은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관에서 이야기 손님으로 코미디언 출신 김병조 교수(사진)를 초대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명심보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음악 즐기 코너에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ONEUL)을 초대한다.

김병조 교수는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명심보감의 지혜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있으며, 오늘은 제15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자로, 이번 무대에서는 오시오, 나빌레라, 사랑타령 등의 창의적인 음악과 재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MBC 목서운 아나운서 진행으로 공연 1시간 전부터 '차가 있는 시간'을 갖고 공연을 기다리는 여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장 로비에서 차와 다과를 제공한다.

관람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 및 전화(063-620-2329)로 예약 및 공연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전북광역새일센터, 도내 7개 군 51개소 기업과 협력망 구축

전북광역새일일가센터(전정희 원장)는 도내 7개 군 51개소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7개 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 문화적 환경구축에 앞장선다.

이는 여성취업활성과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일촌기업을 통해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취업자 고용유지를 지원하며, 여성재용기업에 새일여성인턴지원금, 기업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준비 컨설팅, 기업체 워크숍, 재직자 역량강화교육(커피차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한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적용가능한 일 · 생활 균형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 안내, 일 · 생활 균형 우수기업사례 소개 및 컨설팅도 진행된다. 또한 각 군청의 여성일자리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새일센터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여성인력을 연계하고, 취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정책, 새일센터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또는 취업지원팀(254-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 마한박물관, 어르신 즐거운 활동 공간 된다

상반기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 '손끝으로 만나는 마한' 참가 단체 20일부터 모집... 찾아가는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도 운영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상반기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 '손끝으로 만나는 마한' 참가 단체를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수를 기원하는 '마한 옥장신구 만들기' 체험을 중심으로 학예사와 함께는 전시관람 및 해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실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며 구석기부터 마한까지 익산의 역사를 살펴본다. 또한 마한 사람들이 금, 은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옥'을 활용한 목걸이, 팔찌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의 60세 이상 어르신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마한박물관(063-859-4827)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물관은 교통약자를 위해 학예사가 직접 단체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시 마한박물관 관계자는 "서동공원에서 꽃구경도 하고, 박물관에서 마한 사람들의 보물에 대해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물관이 어르신들의 즐거운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4 상반기 마한박물관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손끝으로 만나는 마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3 ~ 4월

신청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단체 4개소 (매회 10명~20명 내외) 선착순 선정

체험일시 2024년 6월까지(화요일~금요일) 1월 60분

체험내용 마한박물관 전시해설 + 공예체험 (장수를 기원하는 옥장신구 만들기)

신청및문의 마한박물관 ☎063-859-4827 전화신청

*해설과 관람은 사전예약은 필수입니다.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단체의 경우 관내에 따라 직접 방문에 교차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도 가능합니다.

마한박물관

군산시, 전담예술가와 함께 할 소상공인 점포 모집

군산시는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가게 환경개선 및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만남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에는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 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 사업에 참여하면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되어 5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비로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점포는 역시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425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의 경우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j110847@korea.kr)로 보내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